



**2001 제3차 이사회 개최  
협회 발전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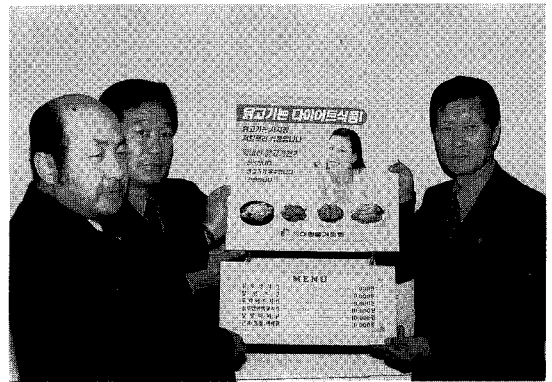


본회 2001 제3차 이사회가 지난 7일 팔래스호텔 라일락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에 이어 협회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보고와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서는 △협회주요업무 추진 △계육협회의 생산자 단체 지정추진에 대한 본회 대응방안 △계란등급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경과 △의무자조금제 입법화 추진경과보고 등이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는 2001년도 수지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또한 협회 자조금사업으로 추진한 계란 홍보 광고, 닭고기 홍보 판넬 제작 등 양계산물 소비 홍보활동 사항도 아울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부의안건으로 다루어진 2001년도 수지예산 검토에서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흑자 경영 등 내실 있는 살림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협회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했으며, 기타사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조직활성화 방안 모색, 육계 표준계약사육서의 공표 및 홍보방안 연구, 현실에 맞는 정보제공 모색, 계육협회 생산자단체 지정관련 육계 생산자 보호 방안 연구 등 협회 발전 및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실무진에 요구하였다.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판넬 제작,  
배포  
판넬 부착식 거행**



본회는 2001년도 양계업 자조금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판넬을 제작, 서초동 소재 외식업체에 판넬부착식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닭고기 홍보판넬 부착식에는 본회 장대석 회장을 비롯, 이연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본회 부회장), 배성황(삼화농원, 본지 편집위원) 사장 및 종계분과위원 및 편집위원(위원장 임병규)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이자리에서 국내산 닭고기 시식회도 있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닭고기 비수기인점을 감안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 많이 활용하는 닭고기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및 영양적 가치에 대한 홍보판넬을 제작하여 보급중이며, 제작된 홍보판넬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메뉴의 닭고기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각 외식업체 본사를 통해 대리점이나 거래처에 부착시켜 나가고 있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가금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설명회 가져

12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심준식)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계란 생산량이 줄면서 대체적으로 원활한 유통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노계도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계도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온 계란등급제가 금년 말부터 대구지역에서 4곳을 선정해 시범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2001년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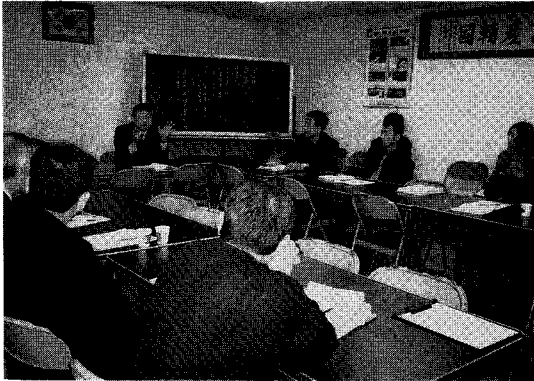
월 말까지 60만수의 종계가 입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봄부터는 실용계생산이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모 종계장에서 신품종을 들여와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종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생산량 조절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모인필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해 강의를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모과장은 인플루엔자는 공기전파로 질병이 이동되지 않는 반면 계분 등 양계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철저한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라 강조하였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닭고기 홍보판넬 부착식 참석

12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2002년도의 분과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증가



하기 시작한 종계입식으로 인해 내년도의 양계경기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불황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계 수출에 대해서는 2001년도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종계수출이 이어졌고, 2002년도에는 판로개척 등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견하면서 국내의 종계도 수출닭과 같이 품종을 우선시 해서 공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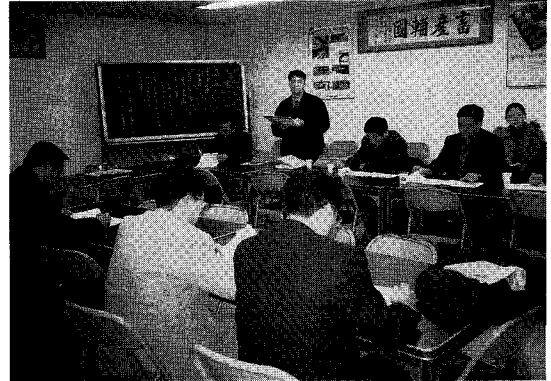
또한, 이날 모인필(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과장이 참석하여 '가금인플루엔자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ND 살처분보상금 정책 등 양계질병 방역에 대한 지침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이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초동 소재 외식업체에서 벌어진 닭고기 소비홍보 판넬 부착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표준사육계약서 발표 서둘러야

12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길영)가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병아리가격이 여전히 높



은 가운데에서도 입추열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 입식된 종계물량이 많은 관계로 북경기 이전부터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01년도 육계분과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2002년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2001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육계인대회를 통해 육계인들의 단합을 꾀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육계표준사육계약서 작성 추진 등 다방면의 활동을 보여온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육계표준사육계약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공표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모인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과장이 참석하여 최근에 문제시되는 AI, ND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기타 질병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 개최 시장접근물량 배정기준 심의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2년도 종계 시장접근물량 배정기준을 놓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본회가 제시한 배



정기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그동안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을 할 경우 필요 이상의 물량을 신청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위해 2002년부터는 각 수입농가의 실적에 맞게 실제 수입할 물량만을 신청키로 하였으며, 특히 종계의 시장접근물

량 운영에 있어서 각 수입농가에 배정한 물량을 분기별(2, 5, 8, 11월)로 파악하여 당초 본회에 제출한 수입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도착일 기준)이 지나도록 수입하지 않는 종계장에 대해서는 종계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물량은 본회에서 관리키로 결정하였다.

### 제3차 위생방역대책위원회 개최 종계·부화장 허가제 우선시 돼야

본회 제3차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식)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1년도 위생방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02년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2년도 위생방역에

### 본회, 애그리브랜드퓨리나 축산·사료 연구대상 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장대석 회장(오른쪽 두번째)」

본회가 재단법인 애그리브랜드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용)에서 시상하는 단체부문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회 장대석 회장이 참석하여 상패 및 상금 1천만원을 부상으로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상재단인 애그리브랜드퓨리나는 본회가 어려운 양계산업 환경하에서도 닭의 경제능력 검정사업을 통해 품종개량을 선도하고

있으며, 양계산물 통계관리 및 생산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기하고 양계산물 유통개선 및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는가하면 특히, 국내 최초로 대규모의 양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양계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후 국제축산박람회로 확대 발전시켜 한국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국양계산업 발전을 주도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 평가에서는 정부와 양계농가들이 적극 협조한 결과로 ND질병이 큰폭으로 줄었으며, 접종율도 산란계의 경우 90%, 육계의 경우 43%로 평균 63%의 접종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OIE 기준에 의한 항체역가 형성율로 평가한 것인 만큼 백신 접종률이란 표현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혈청 채혈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비해 미흡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혈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에는 양계농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모든 종계장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청정한 종계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해 종계·부화장 허가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회를 주축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시대책, 종추장 관리문제 등도 거론되었다.

### 본회 아산채란분회 박용래 분회장 선임



◁ 박용래 분회장

본회 아산채란분회(분회장 박용래)는 지난 14일 월례회의를 갖고 현진농장 박용래 씨를 신임 분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박용래 분회장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에서 2만수 규모의 채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단합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총무는 김한식(수정농장) 사장이 선출되었다.

### 본회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안내

본회 2002년도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3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의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2월 22일 오후 1시
- 장소 : 축산회관 대회의실
- 의제 : 2002년 본회 사업계획 검토 및 임원개선

\* 2002년 제 1차 이사회는 2월 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